


차기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이준신	
소 속	성균관대학교	
직 위	교수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께

우리 전기전자재료학회도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학회로 자리를 잡았으며, 국내를 넘어 국제 학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커다란 발전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 1995년부터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인연으로 22여 년을 봉사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영자논문지편집 부분에서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였고, 2015년과 2019년에는 부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위원 및 임원 활동과 부회장의 경험을 살려 학술 활동과 교류, 산학 협동이 활발한 국내·국제 학회 운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 영문 논문의 고품위 내실화를 위하여 애쓰고, 특히 다른 저널에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인용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데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차기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신훈규	
소 속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첨단재료과학부/나노융합기술원	
직 위	교수	

최근 글로벌 시장경제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회도 비대면,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학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학회활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지난시절 많은 희생과 봉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신 선배 회원들과 임원들의 노고에 의한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학계 부회장 후보서 이러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ICAE 2021을 시켜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ICAE 2021은 제6회를 맞이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해 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 회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행사와 더불어 모범적인 학술활동의 성공사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의 매우 성공적인 개최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TEEM이라는 좋은 저널을 보유한 학회입니다. 특히 Springer가 심사에서 출판까지 관리하는 것은 그 권위를 잘 보여주는 절차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IF를 높이기 위한 꾸준한 준비와 노력으로 전기전자재료분야의 아주 특별한 저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부회장에 당선되면 학회가 2021년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회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부회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전회원의 노력과 임원들의 열정으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보유한 학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며, 동료 회원과 임원단 이사님들과 협조하여 도약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부회장 후보자로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기회장 / 부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 명	김 기훈	
소 속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직 위	교 수	

1. 후보 등록을 하며

처음 이 재신 교수님 및 선배 교수님들의 소개로 전기전자재료학회에 들어왔을 때, 비록 제가 자연대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전기전자재료학회 내부 산학연 각계의 학회분들과 융합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음에 놀랐고, 아울러 많은 선후배 동료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환대해주심에 또, 놀랐습니다. 그간 ICAE등의 학회를 참석하고 학회 운영에 일부 참여하면서, 그간 선배 임원 여러분의 학회를 위한 묵묵한 봉사과 겸손함에 또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회 봉사를 할 기회를 주시면, 저 또한 열린 마음으로 그간 전자재료학회에서 받은 보은을 갚는다 여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 학회 운영 철학 및 방안

다음과 같은 점에 제가 좀더 학회를 위해 기여를 해보겠습니다.

■ 열린 학회로서의 신임 회원의 증가를 위한 노력

현 회장단 및 차기 회장단을 보좌하여, 우리 학회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전자재료를 활용하여 연구에 임하고 계신 자연대 및 기초 영역 산학연 연구자들을 우리학회에 가입시키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술 및 기술 활동 증가와 국내외 교류

다년간 기초 및 응용 재료를 위주로 한 학술회의 진행 경험을 살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초 및 응용 연구 주제 발굴을 통한 학회원들의 학술 활동 증대 및 활발한 국내외 교류에 기여하겠습니다.

■ 최첨단 장비 활용 및 전문가 세미나 활성화

현 기초과학 공동기원장의 근무 경험을 살려, 학회원들이 필요한 신규 첨단 장비의 소개 및 전문가 세미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포함 산학연 협력 체계 기여

중소 기업 운영 및 중소기업 과제 협력 경험을 살려, 산학연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필요 주제 발굴 및 산학연 협력 과제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